

안녕하세요.

오르비 클래스 인강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는 국어 강사 김현종입니다.

그동안 21년간 재수 종합반 강의와 또 대치동 국어 논술 전문 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 **들고 외롭게 독학하는 재수생**이나 **혼자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 수만휘 친구들**을 위해 **수능 국어 3-6등급 탈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선생님이지만 도움 받는다 생각 드신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번째] 비문학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제 칼럼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난번에 여러분께 비문학 행동 강령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글의 전체 대상을 찾아라.... (그것은 어디에 있나 ?)

= 첫 문단 첫 줄에 있다 !!

둘째,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그건 왜 ?)

= 글 전체 대상을 하부 조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문단에서
는 작은 대상이 된다 !!

초딩 수준의 예를 들면 (숫자는 첫줄, 둘째줄...)

과일 = 첫문단 첫줄에 나옵니다.
1. 사과 = 과일의 하위 개념이고 2문단의 주된 대상입니다. 2. 빨간 사과 - 애네들은 상위개념 사과를 뒷받침합니다. 3. 파란 사과 - 애네도 마찬가지...
1. 배 = 과일의 하위 개념이고 3문단의 주된 대상입니다. 2. 노란 배 - 위와 같음 3. 까만 배 - 위와 같음
1. 포도 = 과일의 하위 개념이고 4문단의 주된 대상입니다. 2. 검정 포도 - 위와 같음 3. 청 포도 - 위와 같음

여러분이 만나는 어렵다고 하는 비문학들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저 읽기만 합니다. 그것도 밑줄 긋고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정말 많이 읽는데 어떻게 읽는 줄을 모르는 이 모순상황 !!!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하는 지를 모르는 상황...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 돌아나왔네요...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난번 기출 CD지문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아래 그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번호는 줄 수입니다. (첫줄, 둘째줄....)

1. 대상 : CD 드라이버 2. CD 드라이버와 관련있는 CD 판 (랜드:피트)
1. CD 기계 (CD 판 얘기했으니 이제 기계임) - 기계 구성요소 3가지 2. 구성요소 1 3. 구성요소 2 4. 구성요소 3 (여기까지 기계 설명 다 끝났습니다. 센스있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기계에 대해 간단 체크나 정리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1.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다. 2가지 원인으로 2. 첫째 원인 - 해결방법 3. 셋째 원인 - 해결방법
1. 첫째 원인 - 해결방법 (부연 및 상술, 예시) - 이미 나온 거 더 자세히 설명 2.3.4....
1. 둘째 원인 - 해결방법 (부연 및 상술, 예시) - 이미 나온 거 더 자세히 설명 2.3.4....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각 문단에도 대상이 있다는 말.....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문단은 첫문단의 하위개념이면서 둘째문단만의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또 하위개념으로 나뉩니다. 읽을 때 그것 들은 정리하고 체크만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체크만 하고 가야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품고 가는 순간 ... 여러분은 3문단에서 모든 것을 쏟고 뱉고 다시 올라옵니다.

즉, 2문단은 기계의 구성요소를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런 이런 요소와 이런 저런 개념이 있다... 전체 대상과는 이런 관계이고 이런 하위개념이다....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 표시하고 가야지... 품고 가고 이해하고 가려 한다면 금방 뱉어내게 돼있습니다.

그게 센스있는 독해와 무지한 독해의 차이입니다. 한 문단 한 문단 후우하면서 간신히 읽었다는 독해는 다음 문단 읽을 때 전 문단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죠 ?

멍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읽었나 ?

눈 부릅뜨고 동그라미 밑줄 그어가면서말이죠 ?.... 맞죠 ? ...

선생님 말이 맞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도 메인으로 올라가 봅시다. ㅋ

이번 지문은 2015 B형 기출인 수퍼문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 외칩시다. 비문학을 만나면 무엇부터 찾는다 ?

= 대상을 찾아라... (첫 문단 첫 줄에 나온다...)

1줄= 대략 이 글의 대상은 큰 보름달 슈퍼문입니다. (첫문단 첫줄...)

2줄= *** 왜 이런 현상 ? = 문제제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대상이 바뀝니다.) 본인이 글에서 물어봤으니 당연히 본인이 글에서 반드시 답을 줘야 합니다.

= 달의 공전궤도 때문이다. (즉 타원궤도)달의 궤도이니까 대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첫문단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직 어려움 없습니다. 둘째문단으로 갑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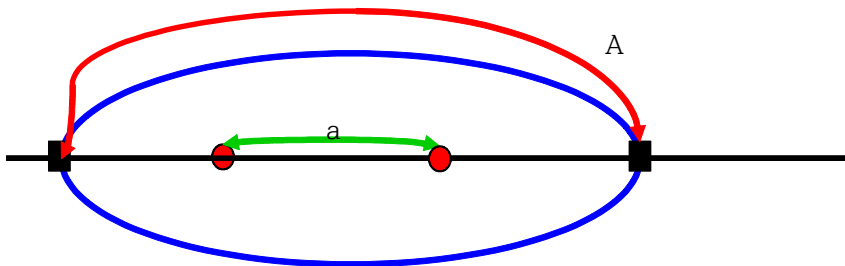
또 외칩니다. 각문단 첫줄을 찾아야 그 문단의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2문단의 대상은 첫줄에서 타원입니다.

그러면 2문단의 내용은 타원 얘기가 위주입니다.

결국 1문단의 대상인 슈퍼문(달의 궤도=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한 단락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글을 그림으로 옮기지 못해 생기는데...솔직히 고등학생이라면 타원은 기본이라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수학 손 놓은 지 30년이 넘은 선생님도 대략 이해가 갑니다. 한글 파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숫자는 첫 줄, 둘째 줄...)

1. 일단 첫줄은 타원의 개념입니다. 점들의 집합.... (여러분이 수학자가 아니란 거 출제자도 다 아 니까 더 알려고 하지 말고 타원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거리 를 합했을까..그 값이 왜 일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3-5등급을 만들어내는 산만 한 정신입니다. 앞문단의 슈퍼문 이유가 타원궤도 때문이라고 하니까 파란 선이 궤도구나...정도 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
2. 빨간 점이 초점인데 여러분 그것을 가운데로 모아보세요. 타원이 원이 되겠죠 ?
3. 긴 검은 선이 장축입니다. 두 초점에 녹색 화살표 보이죠 ? 타원 지름에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
A(예를 들어 10미터)로 a(예를 들어 4미터)를 나누는 것을 이심률이라고 함.... (이심률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란 거 출제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마친 학생들이니까 분수값 정도는 이해해야겠죠 ?)
4. 10분의 4의 값 > 10분의 2.... 초점이 거리가 가까울수록(4미터보다는 2미터일 때 값이 더 작 아짐.....) 그래서 이심률은 작아집니다.

=====**여기까지가 2문단입니다. 4줄을 지문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됩 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 슈 퍼문은 달의궤도(타원)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대상을 잊 지 않고 있어야 산만해지지 않고 지문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문단으로 갑니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또 외칩시다.... 비문학을 만나면 ? 어떻게 하라고 ?

첫째, 글의 전체 대상을 찾아라.... (그것은 어디에 있나 ?)

= 첫 문단 첫 줄에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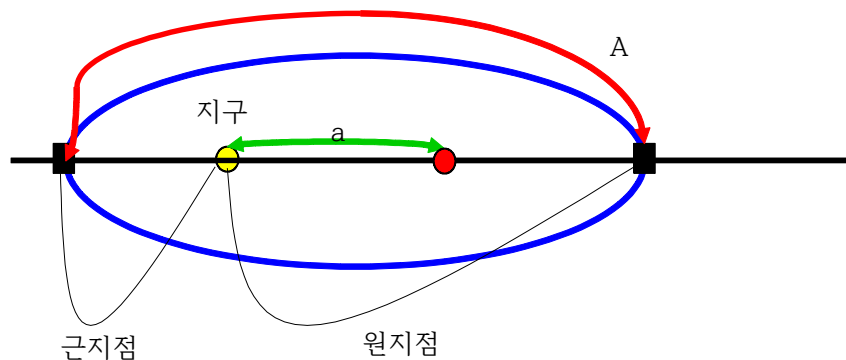
둘째,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그건 왜 ?)

= 글 전체 대상을 하부 조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문단에서 는 작은 대상이 된다 !!

(숫자는 첫 줄, 둘째 줄...)

1. 이번 문단의 첫줄은 역시 달의 궤도입니다. 이심률 0.005라네요... 계속 달 궤도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첫줄에서 지구가 한 초점입니다. 그거 읽어내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글의 대상을 열심히 뒷받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 원지점과 근지점 개념입니다. 아래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죠 ?



3. 자 눈으로 보더라도 보름달이 지구에서 봤을 때 근지점이 크겠어요 ? 원지점이 크겠어요 ?

근지점이죠 ? 그러면 같은 보름달이라도 슈퍼문은 근지점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비문학의 게임은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각 문단의 첫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각 줄과 문단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원지점에도 보름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원지점은 슈퍼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파악

4. 원지점에 있는 보름달보다 근지점에 있는 보름달이 14% 크다.. ? ...같은 크기인데?...당근이 죠...

여기서 고개가 가우뚱하면 할 말 없음... (겉보기 지름 때문이다.= 각지름) 보름달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생긴다는 얘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3문단인데 계속 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근지점보다 원지점이 각지름은 당연히 작겠죠 ?...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자 4문단으로 갑니다.

또 외칩시다. 각 문단 첫줄....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진 사람들은 2, 3문단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웬만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 3문단부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요.... 정리가 안되니까요....

다시 보자고요...

1문단 이 글의 대상은 슈퍼문입니다. 달의 타원궤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2문단 타원궤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3문단 지구를 중심으로 근지점, 원지점....

계속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달 얘기 (슈퍼문)

그러면 4문단은 당연히 슈퍼문 하위개념이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

지구 공전궤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달의 궤도에다가 지구 궤도까지....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힌트는 역시 첫줄에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이와 같은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갑자기 지구 얘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니까 우리 머리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과 생도 아닌데 문과생한테 이런 문제 낸다고 시험장에서 시베리언 씩스키라는 dog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지구 얘기라 하더라도 달과 같은 얘기니까 너희들이 잘 대비해서 읽어보렴.... 이 뜻입니다.

1. 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달에다가 지구를 대입....)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2. 저 위에 그림을 여러분이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3. 달과 달리 지구는 원일점,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4. 달쪽에서는 슈퍼문인데 지구쪽에서는 일식현상입니다.
5. 천체의 순서나오고...
- 6.
- 7

..... 하여튼 개기일식, 금환일식.... 지구 자리에 달 가져다 놓으면 되는 얘기입니다.

=====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각 문단마다 방향을 상실해서 지문이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 달이 나오다가 지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도 그려봤다가 결국 다시 지문 또 읽어보고... 이해될 거 같은데 문제 풀다가 다시 지문 읽고 있으니.... 그러니 1등급인 친구가 갑자기 4등급 맞고 나타나서 선생님 3수가 험난한가요 ?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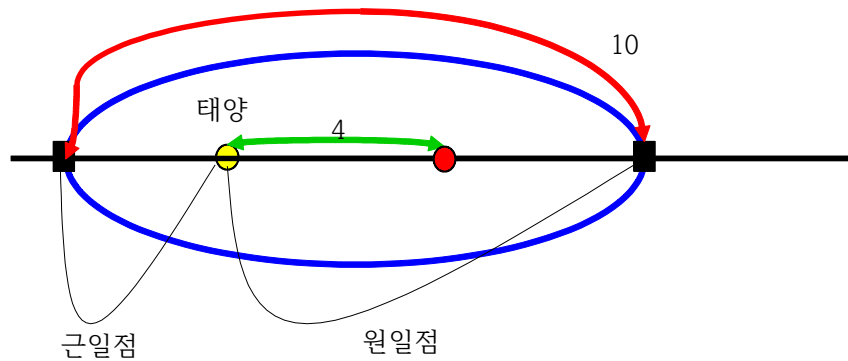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당연히 첫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1.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 모두 타원의 궤도 이름입니다.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영향받는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달이든....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이든...)
2. 달이 아니라 지구 얘기입니다. 지구 이심률.... (지구가 초점이니까 결국 태양...)

3.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다... (대부분 이 부분을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공식화 시키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그냥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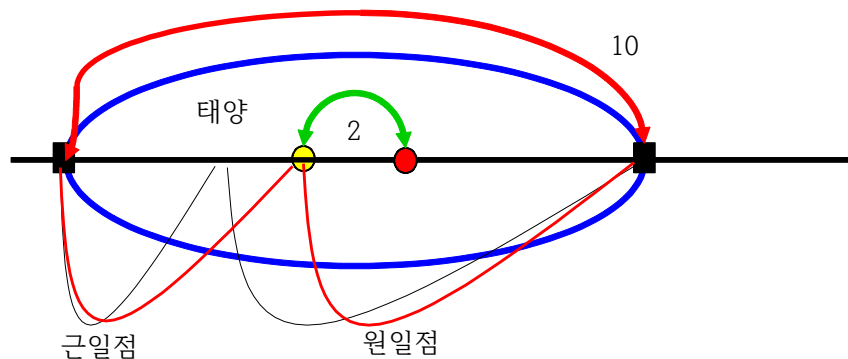
단....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3줄에서 천체학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심률만 더 작아진다면....



이제 두 초점이 가까워집니다. 노란색원과 빨간색 원이 가까워집니다. 원래는 가까워지면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심률만 작아진답니까.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바깥 검정 사각형은 그대로인데 (4미터인 거리가 2미터로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10분의 4가 10분의 2가 되어서 이심률이 작아진 그림이 아래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심률만 작아진다는 말은 10분의 4가 10분의 2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그러면 초점이 당겨지면서 타원은 원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심률만 작아진다고 했으니 타원 그대로다...)

그럴 때 노란색 태양은 중심으로 갈테니까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노란색이 다가가니 노란색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될 것을 인터넷 상에서 지문 분석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조의 비법, 논리의 흐름 기법.... 수능 지문 속의 숨겨진 출제원칙....어찌고 저찌고 하는 공식... 자기만이 찾아낸 공식.. 어찌고... 아이고그냥 그림으로 이해 되시죠 ? 반대는 당연히 여러분이 해보세요....

====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달의 타원궤도 얘기를 하다가 지구의 타원궤도

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 글은 원래 대상인 슈퍼문의 타원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
다. 슈퍼문의 얘기를 지구로 대신해서 그렇지....

===== 이처럼 필자는 중심 대상을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비문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전체 대상을 찾고 각 문단의 작은 대상을 찾아가면서 글을 제대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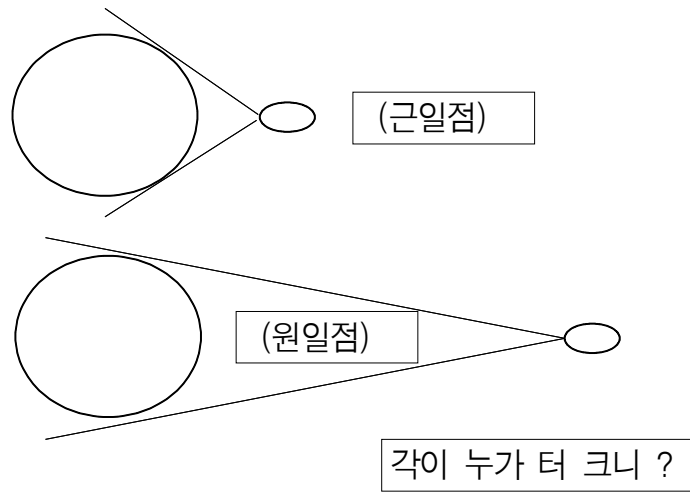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문제 = 내용 파악 문제 = 대상을 잘 찾았는지... 대상을 중심으로 각 문단의 핵심을 잘 잡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 ① 달 근처의 천체에 의해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됩니다. (5문단)
- ② 달 공전궤도와 지구 공전궤도입니다. 그리고 원 모양이네요. 결국 이심률입니다.
달 이심률 0.055 > 지구 이심률 0.017 (값이 작아야 원에 가까운데 지구가 더 작네요...)
- ③ 태양-달-지구이니까 태양이 더 커야 금환일식이 되겠죠 ? 각지름은 태양이 더 커야죠...

- ④ 근이 더 가깝니 원이 더 가깝니 ? 멀리 있는 원지점이 더 커보이겠니 ?
- ⑤ 근은 가까운 것이고 원은 먼 것이니까



비문학 1개월 / 문학 1.5개월 / 화법-작문-문법 1개월 / 실전 문제 풀이 0.5개월
 4개월 후에 3-5등급 ==>> 1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수업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komusso@hanmail.net / 카톡아이디 komusso / 02)2051-2727 대치 이룸학원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문제 = 윗글을 바탕으로 = 위 내용 파악 못하면 못푼단다...애들아.... 이문제입니다.

보기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째줄에 보면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렇게 두 개의 거리가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5줄에서 지구와 태양만을 고려하여 얘기한답니다. 예시라는 겁니다. 이걸 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1월에 조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이해되시죠 ? 7월은 가장 먼 거리겠죠?오케이 ?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보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심률과 천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①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 초점이 그대로라는 얘기네... 그러면 1월이 근지점이니까 슈퍼문이고 7월은 원지점이니까 그냥 보름달이지 ... 무슨 슈퍼문이야 ? 같은 보름달인데 근지점일때가 슈퍼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기억나시죠 ? 그런데 돌아다니는 해설서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지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② 1월은 근지점입니다. 같은 보름달이라도 근지점에 있는 보름달이 원지점보다 더 큽니다. 14%...기억나시죠 ? 그런데 어떻게 원지점에 있는 달이 조차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 원리대로 이해하면 됩니다.....지나가도 되겠죠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③ 7월은 조차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 보름달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보름달입니다. 따라서 슈퍼문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원지점에 있는 달이 얼마나 인력이 강하면 조차를 더 크게 하겠는가 ?.... 지나갑시다...?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④ 이심률이 커진다는 것이 10분의 2일때보다 10분의 4일 때이니까... 초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 위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색 원이 근일점과 가까워지겠죠 ? 그러면 당연히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니까 조차는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그림을 보면 그림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니까 더 커지는 것.... 이해될거야... 바로 답이지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⑤ 이심률이 또 커지네... 그림 생각해봐... 근지점은 가까워지고 노란 원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과는 멀어지는 것이니 변화 전보다 변화된 후가 더 벌어졌으니 조차는 더 작아지는 게 원칙이지... 오케이 ?

여러분 슈퍼문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비교해도 좋습니다. 현재 설명이 틀린 해설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설명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1:1 대응이네... 1:1 대응의 파괴네....참으로 21년간 수능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고 하수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글의 대상 찾고 각 문단간의 유기적 관계 찾고, 정보확인 문제들과 필자의 관점 문제들과 과학 기술의 원리 적용 문제를 제시문을 가지고 풀면 되지.... 이것은 1:1 대응지문이다. 이것은 파괴된 지문이다.... 이럴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곧 수능 다가옵니다. 원칙대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 다 나옵니다.

힘냅시다...